

전주시 수출상담 주간 500만불 규모 성과

수출상담회·바이어 매칭·현장 계약까지 일원화된 지원체계로 수출·투자 성과 창출

전주시가 수출·상담 전시회 지원과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경제 교류 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2025 전주시 수출상담 주간'을 통해 총 500만 불 규모의 수출·투자 성과를 창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KOTRA 수출상담회에서의 현장 계약 성과와 지난해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해 온 베트남 협력 기반이 결합된 결과물로, 기간 지역 단위에 머물렀던 해외 판로 지원을 국가 수출 전략과 연계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일산 컨텍스에서 개최된 KOTRA 북업코리아 수출상담·전시회에 9개 기업을 파견하고 전주시 공동관을 운영했다.

행사 기간 전주시 부스에는 2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방문했으며, 참여 기업당 6~10회의 1:1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시는 사전 바이어 조사와 매칭 지원, 공동 전시관 구성, 상담회 연계 운영 등 준비 단계부터 계약 단계까지 지원을 일원화했으며, 그 결과 ㈜휴비스가 일본 바이어 등과 약 90만 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하는



지난 24일 전주시 드론스포츠포복합센터에서 '2025 한·베 경제인 화합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지난 2024년 11월 우범기 전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경제 사절단을 파견한 이후 약 2년간 베트남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경제 교류 성과도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현지 유망기업(K·마켓 등), 한인 경제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주시 우수기업 5개사 제품을 베트남 현지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며 시장성을 검증해 왔으며, 바이어 DB 구축, 수출 상담, 통관·유통 테스트 등 지속적인 실무 기반을 마련했

다.

지난 24일 전주시 드론스포츠포복합센터에서 열린 '2025 한·베 경제인 화합의 밤' 행사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추진된 것으로, 고상구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과 김완엽 DI VINA 대표 등 베트남 주요 바이어가 직접 전주를 찾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식품 수출과 현지 생산 투자, 관광·의료 협력 등 약 400만 불 규모의 계약 및 협약이 체결됐. 베트남이 단순 교역 대상이 아니라 전주시의 전략적 수출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베트남을 전주시 수출기업의 실질적 거점 국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 전용 상설 홍보·판매관 설치 △현지 유통망 연계 연합회장과 김완엽 DI VINA 기반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024년에는 기반을 조성했고, 2025년에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내년부터는 베트남을 수출 전진기지로 삼아, 지역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서신동 제2회 우리동네 페스타

자생단체·주민 참여 공연·체험·먹거리 장터 등 열려

지난 25일 완산구 서신동 (주)이마트 아외주차장에서 서신동 제2회 '우리동네 페스타' 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작년에 이어 열린 축제로 지역 자생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서신동의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고, 문화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스, 먹거리 장터 등이 운영되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졌다. 치킨, 떡볶이, 장어볶음 등 다양한 음식을 직접 조리해 푸짐한 양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자리 잡았으며, 서신동과 결연을 맺은 진안 마령면에서도 참가해 지역 농산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원광보건대에서 CPR 체험을 하기도 했다.



작년에 이어 동민들이 모여 활기찬 한마당을 이뤘다는 것도 주목을 받았지만, 특히 이번 행사는 서신동 자생 단체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적극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회원들이 공연하고, 자생단체에서 행사장 질서유지, 부스운영, 무대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생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권희성 기자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DK몰 단전 따른 협의체 구성

전주시가 송천동 에코시티 DK몰 단전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한전·이마트·상인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는 단전이 예고된 에코시티 DK몰의 영업 재개 등 사태 해결을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해결 방안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코시티 DK몰은 소유자의 경영난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전기요금에 체납되는 등 공과금이 납부되지 않아 지난 21일 한전으로부터 단전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마트 에코시티점 등 20여 개 임점 업체들은 이날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 DK몰 단전 현

장을 방문해 현장 점포 직원들을 면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영업 재개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전력 측과 단전 유예를 협의하고 소유자(관리인)의 전기요금 납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영업 정상화 방안 및 사태 수습을 위한 현장 대응에 노력해 왔다.

시는 이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을 포함한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시 일자리센터 연계 일자리 지원 및 상용보 증재단 연계 대출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 및 법률 지원 등을 검토하는 한편, 영업 현황 및 휴·폐점, 철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내달 7일까지 민방위 시설 현장점검

전주시는 27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전주시역 민방위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안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민방위 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대피시설 5개소 △비상급수시설 10개소 △경보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피시설의 내·외부 관리 상태 및 안내·유도표지판 식별 가능, 상시 개방 여부 △비상급수시설의 주변 환경 청결 및 수질 검사서 기재 여부 △경보 시설의 정상 작동 및 방문자 명부 비치 여부 등이다.

/권희성 기자

‘인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인권공감 문화행사

11월 11~12일 전주 곳곳서 개최

인권도시 전주에서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월 10일)을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1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전주시청 강당과 전북대상점가 버스킹존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25 전주시 인권공감 문화행사'가 펼쳐진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전주시청 강당과 전북대상점가 버스킹존, 시청 로비 책가동도서관 등에서 진행되며, △인권특강 △문화공연 △인권영화 상영 △홍보부스 운영 등 시민이 일상에서 인권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오는 11일 시청 강당에서 열리는 시민 인권특강에는 문형배 前 헌법



재판관이 초청돼 '헌법소원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문 전 헌법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통해 인권의 본질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

께 나누게 된다.

이날 특강에 앞서 인권 감수성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이 사전무대로 마련되며, 400여 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참석해 인권의 의미를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둘째 날인 오는 11월 12일에는 전북대상점가 버스킹존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권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문화공연은 '노루걸개 장애인 앙상블연주단'의 감동적인 연주와 재즈 공연을 통해 인권의 다양성과 존중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 현장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전주시 인권센터를 소개하는 인권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전주시청 로비 책가동도서관에서는 시민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영화 상영된다.

/권희성 기자

색깔있는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HU

百 人 百 色

백 인 백 색

추천 전주매일 창간



호원대학교
HOWON UNIVERSITY

내 인생의

COLOR를 찾는 곳!

입/학/상/담

1588-9779